

관광해남 관문 대흥사 시설지구 재정비 시급

식당·상가 등 60여곳
조성 20여년 노후화 침체

부지·건물 소유주 달라
재개발·리모델링 절림돌

해남 두륜산 도립공원내 대흥사 집단시설지구의 활성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곳은 지난 1985년 민간업체인 대흥개발이 부지 28만㎡에 사업을 시행해 1990년초 식당과 숙박업소 등의 건물을 완공해 민간에 분양을 했다. 20여 년이 지난 현재 식당 30여 곳, 숙박업소 14곳, 유흥업소 5곳, 일반상점 13곳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4~5곳의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집단 시설지구의 상업활동에 한계가 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건물이 들어선 대부분의 토지는 대흥사 측의 소유이지만 건물의 소유주는 민간에 있다. 이에 따라 건물노후화 등으로 인한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의 투자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서 침체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식당과 숙박업소 등은 현재의 가족단위의 관광 트렌드에 맞는 개발



해남 대흥사 집단시설지구내 상가. 이곳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등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나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전남도와 해남군의 지속적인 도로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투자로 대흥사와 일부 유흥식당, 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과 해남군의 스포츠마케팅 정책에 힘입어 찾아오는 전지훈련팀 유치 등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부터는 해남읍~삼산농협 구간(5.1km)에 대한 4차로 확·포장공사가 착공될 예정

이어서 완공되면 접근성이 쉬워져 대중교통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민들과 상인들은 “대흥사권은 관광해남의 관문”이라며 “관광객 유치나 발전 비전은 밝다”고 전망하고 현재의 집단시설지구의 여건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경쟁력있는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대흥사 사찰 측과 해남군이 나서서 민간투자 등의 적극적인 대흥사권 활성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해남군 관계자는 “대흥사권 개발 문제는 사유지의 공유지분 토지의 매입이나 매각시 복잡한 문제가 따를 것”이라며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의 다수 민원으로 인해 재정비 등에 대한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군에서도 집단시설지구의 전체 재정비에 대해 민간투자나 직접투자 등을 통한 참여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해남=글·사진 박희석기자 dia@

장보고의 해상무대, 다도해에 미래 있다

장보고기념사업회

국회서 국제 학술대회

장보고 대사의 업적과 다도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지속가능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 학술회의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사)장보고기념사업회(이사장 김성훈)와 김영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장보고 해양경영사 연구회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이 주관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다도해의 발전전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장보고의 고향 완도는 우리나라 바다경연의 전조기지가 되어 청해진의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민선 6기 군



신우철 완도군수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근 국제 학술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김성훈 이사장의 ‘장보고가 꿈꾼 미래, 다도해의 비전’ 기조강연에 이어 ▲중국 저우산군도 개발지구 지정과 발전전략(중국 저장해안대 왕잉 교수) ▲전남의 미래 비전과 다도해(강봉룡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 ▲일본의 도서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일본 離島센터 마키히로시 연구

원) ▲유럽 섬 공동체의 다차원 거버넌스(유럽 Island Dynamics 아담 그리이데호 회장) 등 주제논문이 발표됐다.

김성훈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다도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는 추세를 점감하고, 우리나라 다도해 연구와 정책 개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학술회의를 국회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 eichung@

진도 관매도 여객선 접안시설

내년 6월까지 보수·보강 공사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형대)은 내년 6월까지 진도 관매도의 여객선 접안 시설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한다.

이번 보수·보강 공사는 도서지역 연안 여객선 이용자의 승·하선 안전 확보와 여객선의 원활한 이·접안을 위해 시행된다.

목포항만청은 해양수산부의 ‘2014년도 연안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에 따라 선정된 진도 관매도의 노후된 접안시설을 보강하고자 국비 8억원을 투입, 지난 10월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선양장 신설 및 보수·보강공사(35m), 호안 보수·보강공사(60m)를 2015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앞서 목포항만청은 지난해 진도 쉬미항과 신안 옥도항의 접안시설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목포항만청 유종원 항만공사과장은 “진도 관매도의 수려한 관광자원에 의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노후된 여객선 접안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진도군 “농업소득 5000억원 달성”

내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 4개년 계획

진도군이 농업소득 5000억원 달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4개년 계획’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진도군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 정책추진 방향을 ▲친환경 유기농 생산·유통·판매 기반구축 ▲기업농·고령농 맞춤형 지원 ▲지역특화 고소득작물 육성 ▲농산물 가공산업 조직화·규모화 추진 등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로 정했다.

군은 농업환경, 기술개발, 생산·가공·유통·소비, 농업인 의식개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판매로 감동주는 진도 행복 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종합 대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군은 친환경 예산도 현재 160억원 규모에서 오는 2018년까지 72%가 증가한 276억원을 투입, 핵심과제 7개분야 42개 사업 추진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 농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으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기농 확대 및 유기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등 37개 사업에 241억원 투입과 함께 친환경 유색비 전문 중

합 가공센터도 건립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오는 2018년까지 작물별로 유기농 인증 면적을 경지면적의 15%인 1500ha로 확대하기 위해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유기농 순환기반 확충 ▲친환경 생태 전문단지 집중 육성 ▲품목별 조직화를 통한 유기재배 농가 생산 안정화를 실시한다.

또 전국 유통량의 70%를 차지하는 김장 생산 가공 확대와 거점화·생산 매카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품종 개발로 우수 품종 보급 ▲전문 종합가공·유통센터 건립 등 가공·유통 설비 확충 등을 실시한다.

이동진 군수는 “진도군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있는 명품 농업군을 만드는 것과 농업 소득 5000억원 달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라며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4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해남군 어업인들이 최근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백장어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해남군 ‘전남도 수산경영대상’ 우수상

어장관리·어촌체험마을 등 어업분야 잇단 수상

해남군이 올해 어업분야에서 굵직한 상을 잇따라 수상하고 있다.

해남군은 “최근 전남도 주관의 ‘2014년 수산경영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시상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10월까지 1년간 전남도 시책분야 및 해양수산 일반분야, 양식어업 분야, 어선어업 분야, 수산물 소비확대 분야, 수산자원회복 분야, 우수사례 등 총 8개 분야 25개 항목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다.

특히 연간 4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수산자원 조성 관련 사업을 적극 추

진하면서 연안어장 황폐화를 극복하고 어업인 고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송지 사구 어촌체험마을과 북평 오산 어촌체험마을 등이 활발히 운영되면서, 각 마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대도시와 직판을 통해 판매하며 주민 소득증대에 앞장선 것도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한편 송지면 내장 자율관리공동체가 전국대회에서 장려상(시상금 5000만원)을 수상한데 이어 송지 사구 어촌체험마을이 전국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서 최우수상(시상금 6000만원)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부동산 매각 공개입찰 공고

1.매각대상 부동산		
소재지	종별	매각대상(대지면적/연면적)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23-1,2 스타타워빌딩	오피스	지상3층 ~ 지상9층 (810.18㎡/8,898.68㎡)
2.입찰일시		
구분	입찰일시	장소
일정	2014년 12월 17일(수) 14:00	한미회계법인 삼성동 본사(6층) 회의실
3.매각 및 낙찰자 결정방법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①매수자의 매매계약 역할을 고려하여, ②매도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최저유보가격을 초과하는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③항에 관하여서는 매도자 자체평가		
4.입찰 참가자격		
만19세 이상 성인으로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개인 및 법인		
5.입찰시 제출서류 등		
1)입찰신청서(소정양식) 2)개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4)대리인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5)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시중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6)입찰자 명의의 입찰보증금 환불계좌 사본 1부 7)입찰세트(매각주간사 보도문의 요양)		
6.기타		
- 공매물건의 공부 및 실태파악의 구조, 면적 등의 상이, 행정상의 규제, 임대차 내용 등에 대하여서는 매도자 및 매각 주간사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사전 현장답사 및 행정관청 등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낙찰물건에 대해서는 현존 상태로 영도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매각주간사인 한미회계법인 홈페이지(www.hanmia.com) 참고 및 공개입찰 담당(TEL:(02)3453-4554, FAX:(02)3453-0174)에 문의 요양		

2014년 12월 2일
한미회계법인(매각주간사)

남도공인중개사

<학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망 양호, 매4억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동 교통편리, 매7억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대지 및 전 1,733㎡ 슬라브주택 교통편리, 매9천만

농지 / 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대지 6,600㎡ 주택 2차선 도로변 및 4차선 국도점, 매10억
- ▶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답 6,605㎡ 도로양호, 전으로 사용가능, 매1억 4천만
- ▶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전 25,120㎡ 2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투자유망 매5억
- ▶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전(지목상 임야) 20,495㎡ 영농조건 양호, 임대수익 양호. 투자유망, 매3억 7천만
- ▶ 나주시 관정동 매림지 전 7,547㎡, 2차선 도로변, 매3억 2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답 2,975㎡, 2차선 도로변, 매1억 3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답 13,530㎡, 면 소재지, 매3억
-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30억
-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대봉강나무 과수원, 고소득 가능, 매4억
- ▶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전 6,600㎡ 4차선 도로변, 계획 관리지역, 매2억 9천만
-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투자유망, 매17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 010-9510-1150, 061) 333-1150



땅 매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
답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3억 6천만원**
(중개 수수료 없음)

주인직매 010-8676-1900